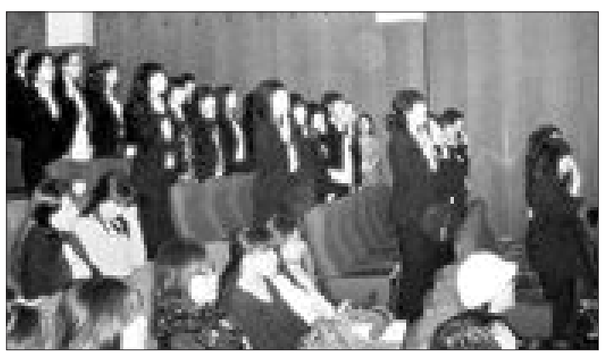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무등산 자연보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공동 상임대표 임내현 변호사)과 광주지구 JC특우산악회, 이목회 회원 100여명은 최근 무등산 증심사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벌였다.

광양제철소 봉사단 다문화가족과 자매결연

광양제철소 직원들로 구성된 프렌즈 봉사단원들은 최근 광양시 금호동 백운프라자로 인근지역 다문화가족 19가구를 초청, 자매결연을 한 뒤 음식을 나누며 우정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주여대 초등교육과 장애인 교육 헌신 선서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초등특수교육과(학과장 김일명)는 최근 교내 어등관 세미나실에서 초등특수교육과 4학년생들이 평생을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제1회 설리번 선서식'을 가졌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27년차 지구협의회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김용채) 제27년차 지구협의회가 최근 광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회원 6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지구대회에서 심재규 차기총재는 3710지구를 이끌어갈 계획 등 포부를 밝혔다. 〈국제로타리 클럽 제공〉

전남대 첫 외국인 전임교수 멘사 유진 크웨조씨

"5·18성지 광주서 인권 강의 뿌듯"

"인권의 도시 광주, 그곳에 자리한 전남대의 로스쿨이 공익인권법 특성화를 지향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남대 개교 이래 첫 외국인 전임교수로 3월부터 강단에 선 '멘사 유진 크웨조'(47·Mansah Eugene Kwadwo) 부교수는 "미국에서 사기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며 사는 현실이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인권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져온 5·18의 진원지에서 강의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멘사 교수가 한국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미국 로스쿨 시절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부터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에서 중국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영진 교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는 전남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내 이곳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됐다.

멘사 교수의 전문분야는 '인권'이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가나 케이프-코스트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인권변호사로 9년 동안 활동했다.

가나의 경우 경찰과 검찰 등의 공권력 남용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는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로스쿨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한 멘사 교수(한 가운데).

"시대가 변하면서 시스템도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나 정부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그는 가나와 미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을 한국 예비 법조인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멘사 교수가 이번 학기에 맡은 강의는 '국제인권법'이다. 그는 한국적 상황이 아닌 미얀마와 중국, 미국 등 국제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는 "어느 나라나 정부와 인권기구 간에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배후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월이 다가오면서 멘사 교수의 감회가 남다르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 그때부터 한국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그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지만 5·18이 있었기에 한국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광주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지금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이 늘면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며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멘사 교수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보다 더 친절해서 좋고, 이곳에서는 초청교수가 아닌 전임교수 신분이어서 기쁘고, 한국에 있는 동안은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 한국인처럼 살고 싶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오니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뉴욕타임즈 소개

제8회 광주비엔날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37·Massimiliano Gioni·사진) 예술총감독을 소개하는 기사가 뉴욕타임즈에 게재됐다.

지난 4월23일자 뉴욕타임즈 'Art&Design' 섹션은 2006 베를린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역임한 지오니 감독의 이력과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활동하게 된 소식을 기사화했다.

또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지역 선두 비엔날레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이고, 개최기간 동안 약 100만명 가까운 관람객을 창출했다"고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편 지오니의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 기사는 아트포럼(Art Forum), 아트매거진(Art Magazine), 아트인포(Art Info) 등 국제 미술전문지들에도 소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석동연 주홍콩총영사 '식객' 홍보 광고 출연

한류 돌풍의 진원지였던 홍콩에서 오는 30일부터 우리나라의 인기 드라마인 '식객'(食客)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출신 석동연 주홍콩총영사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는 광고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식객을 방영할 홍콩 최대 공중파 방송인 TVB는 주말인 지난 25~27일 새벽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석동연 총영사의 홍보 멘트를 시청자들에게 내보냈다.

TVB측은 식객 방영 때까지 지속적으로 석 총영사의 홍보 멘트를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총영사는 홍보 멘트를 통해 "식객은 한식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로서 음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식과 인간관계, 인물간의 감정전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드라마를 통해 다채로운 한국의 각종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면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실 겁니다. 드라마 식객을 TVB 'HD 제이드' 채널을 통해 꼭 만나보세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이기학 학봉장학재단 설립자는 29일 화순능주초등학교에서 화순군 관내 초·중·고·대학생 87명에게 장학금 2천9백75만원을 전달한다.

학봉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화순 청풍출신의 재일교표 이기학씨(79)가 사재 7억5천만원을 출연해 만든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반갑다 친구야" 어려운 시절 끼니를 거르며 근근이 마련한 월사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정겨움으로 50년을 이어온 목포고등학교 8회 동창회생들이 목포에서 50주년 행사를 마친 다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고 8회 동창회 50돌 '뜻깊은 만남'

세계 각지 흩어진 동창생 50명 사랑의 섬 외달도서 행사 가져

가난에 찌들었던 지난 1950년대 후반 학교를 다니던 목포고등학교 8회 동창회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교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목포시 충무동 외달도에 모여 '지구촌대회'라는 명칭의 조촐하지만 뜻깊은 50주년 행사를 열었다. 국내 각 지역 동창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동창생 50여 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모교에 '잠룡 동산'을 조성해 기증하고 매년 학교 발전기금을 내는 선례를 만들기도 했던 이 동창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50주년 행사에도 어김없이 모교 발전기금과 총동창회 지원금을 쾌척했다.

특히 8회 동창회는 1970년대에 동창회 전용공간을 마련해 경향 각지의 동문이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동창회의 각종 사업도 이 공간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동창회는 1979년 졸업 2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1989년에는 개교 이래 최초로 '6·3전국대회'라는 이름으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졸업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기념행사의 효시가 됐다.

이 동창회가 우정과 지역발전 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동창생 개개인이 열정으로 뭉친데다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한화갑 전(前) 민주당 대표, 전윤철 전(前) 감사원장, 박병윤, 민병초 전(前) 국회의원 등 핵심적인 인물들의 노력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노순임씨 장남 김진호군 정병천(대동고 행정실장)·강연자씨 차녀 은선양= 5월2일(토) 오전 11시 30분 메리어트웨딩홀 2층(컨벤션홀)

▲오동수·김춘희씨 차남 태근군 곽선우(순창식품)·이영례씨 장녀 신애양= 5월3일(일) 오후 1시 금호생명 30층 웨딩의 전당(아도니스홀)

▲안병용(순청시청 사무관)·조형숙씨 장남 창섭군 임해택(초대화랑 대표)·이춘화씨 장녀 정원양= 5월3일 낮 12시4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1층(오페라 특실)

동창·동문회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제20차 정기총회= 28일(화) 오후 7시 프라도관광호텔 2층 연회장. 011-647-9977.

▲광주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5월 정기모임= 29일(수) 오전 11시 화순군 수만리 너와나의 목장. 061-373-2202.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30일(목) 오전 9시 (구) 보훈청 대강당.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부음

▲이원종씨 별세 병훈·병석·미자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나라장례식장 202호. 062-670-4444.

▲김복동씨 별세 경남·경철·해영·해란·해숙·나영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나라장례식장 402호. 062-670-4444.

▲김관홍씨 별세 대산·대길·주순·희금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2호. 062-227-4000.

▲조국환씨 별세 동석·은희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여현준씨 별세 주희·주연·명희씨 부친상= 발인 28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박영덕씨 별세 지환·미숙·경숙·순화·순옥·순미씨 부친상= 발인 28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조규근씨 별세 순흠(조순흠 이비인후과원장)·순옥·순희씨 부친상= 발인 28일(화) 그린장례식장. 011-9606-0066.

▲오세덕씨 별세 석·인석·혜경·은경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이주호씨 별세 도일·도익·정숙·미라·선화씨 부친상= 발인 29일(수)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양회상씨 별세 훈승·경애·윤진·희정·희라씨 부친상= 발인 28일(화)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